



Hanyang ChangeMakers

from Volunteering
to Social Innovation

SEVENTEEN HEARTS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
HANYANG UNIVERSITY
SOCIAL INNOVATION CENTER

Contents



총장인사말		02
단장인사말		03
Session 1	이제는 사회혁신으로	04
	1 사회혁신센터 미션과 주요운영 프로그램	
	2 혁신과 연결을 통한 사랑의 실천	
	3 사회혁신 Platform구축	
	혁신과 연결을 통한 사랑의 실천 로드맵 추진현황	
Session 2	사랑의 실천_교육, 봉사, 창업	10
	교육 : ChangeMaker 양성 교육체계	
	1 사회혁신 교과목 신설	
	2 대학생 SDGs 체인지메이커 양성 워크숍	
	3 집중 훈련 프로그램	
	봉사 : 글로벌 사회공헌 리더십 배양	
	1 사회공헌 & 사회혁신 프로그램	
	2 한양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3 2016 한양 ChangeMakers	
	창업 : 공유가치 창출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1 소셜벤처 창업 동아리	
	2 해외소셜벤처	
Session 3	아리랑(我理朗)_세상을 향한 나를 찾는 즐거움	48
	1 Arirang for Neighbors	
	2 Arirang for Youth	
	3 Arirang for Globe	
Session 4	혁신을 향한_연구, 연대, 협력	58
	한눈에 보는 2016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총장 인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한양대학교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지구촌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는 그동안의 노력에 더하여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대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공헌활동을 통해 인성의 성장과 함께 학문적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가?
-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함에 있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는가?
-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 봉사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이슈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세계 청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류를 확대하며 함께 만들어내는 솔루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리더십을 확보하여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오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사회봉사단장으로 모셨으며, 사회봉사단 산하 사회봉사팀을 사회혁신센터로 전환하여 교육, 연구, 봉사, 창업, 연대, 협력 등 대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결하며, 지원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사회공헌 리더십 확립, 조직 강화 노력, 사회공헌 프로그램 혁신 및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본교는 글로벌 사회혁신 선도대학들의 네트워크인 Ashoka U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 Ashoka U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사회혁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2017년을 우리 대학이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사랑의 실천 정신과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 이슈 해결에 앞장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총장 **이영무**

사회봉사단장 인사말

한양대학교는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사회봉사단 22년간의 역사를 밑알로 삼아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하는
한양대학교의 미션 실행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학 사회공헌 활동과 전공의 연계성 강화, 글로벌 사회공헌의 확대, 사회공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봉사단 조직의 구조와 인력 구성을 고도화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혁신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Asia Pacific Youth Exchange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ADB, UNDP, UNEP, UNESCO 등 국제기구와 산학협력단, LINC

사업단 등 교내 기관, 사회혁신 기업, NGO 등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대학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단이 수행해온 작은 성과들을 모아 『한양 ChangeMaker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양 ChangeMakers』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학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사회봉사에서 사회혁신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와 향후 발전 계획
-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혁신, 글로벌 사회공헌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도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육성 사례
- 자신을 찾아가는 기쁨을 상징하는 아리랑(我理朗)을 모티브로 하여 이웃, 청소년, 세계와 함께 한 2016 Seventeen Hearts Festival 소개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국내외 혁신기관과의 연대,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성과

『한양 ChangeMakers』에 실린 각각의 사례와 노력들이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장 **김성환**



이제는 사회혁신으로!

1
Session

사회봉사의 패러다임 전환 : 이제는 사회혁신으로!

1

사회혁신센터 설립 과정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건학이념)'을 위해 1994년 한국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지난 22년간 학생(희망한대), 교직원(행복한대), 동문(함께한대), 지역사회 등과의 교육, 봉사, 창업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사회공헌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 대학 '최초'라는 자부심과, 사회혁신 선도대학으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표로 2017년 사회봉사단 산하의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하였고, 교과목혁신과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교내 사회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혁신의 장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동아시아 대학 중 최초로 'Ashoka U(글로벌 사회혁신 플랫폼 'Ashoka' 선도대학들의 리그)'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멤버십 캠퍼스로 자리매김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1 사회혁신센터의 미션과 주요 운영 프로그램

- HYU 사회혁신 브랜드 차별화 전략수립
- 대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리더십 확보
- '적정기술 나눔' 프로그램 개발

나눔의 글로벌화
(브랜드 가치 제고)

사회공헌활동의
교육적 가치 제고

- 전공연계 프로그램 강화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개선
-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 확보

- 대학 내 사회혁신 허브로서 역할 정립
- 대외 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
- 학생 주도 글로벌 이슈 해결 참여 기회 확대

2 혁신과 연결을 통한 사랑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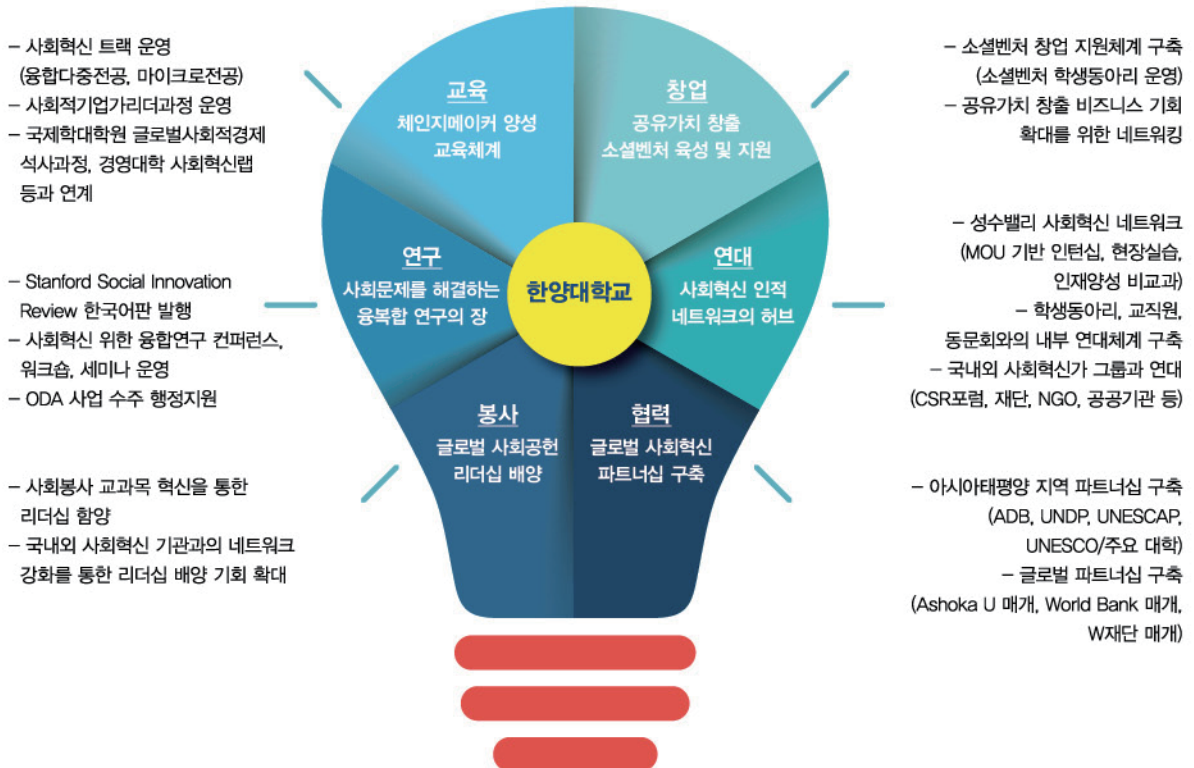


전공을 연계한 사회혁신 교과목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공헌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과목 질 관리를 통한 사회혁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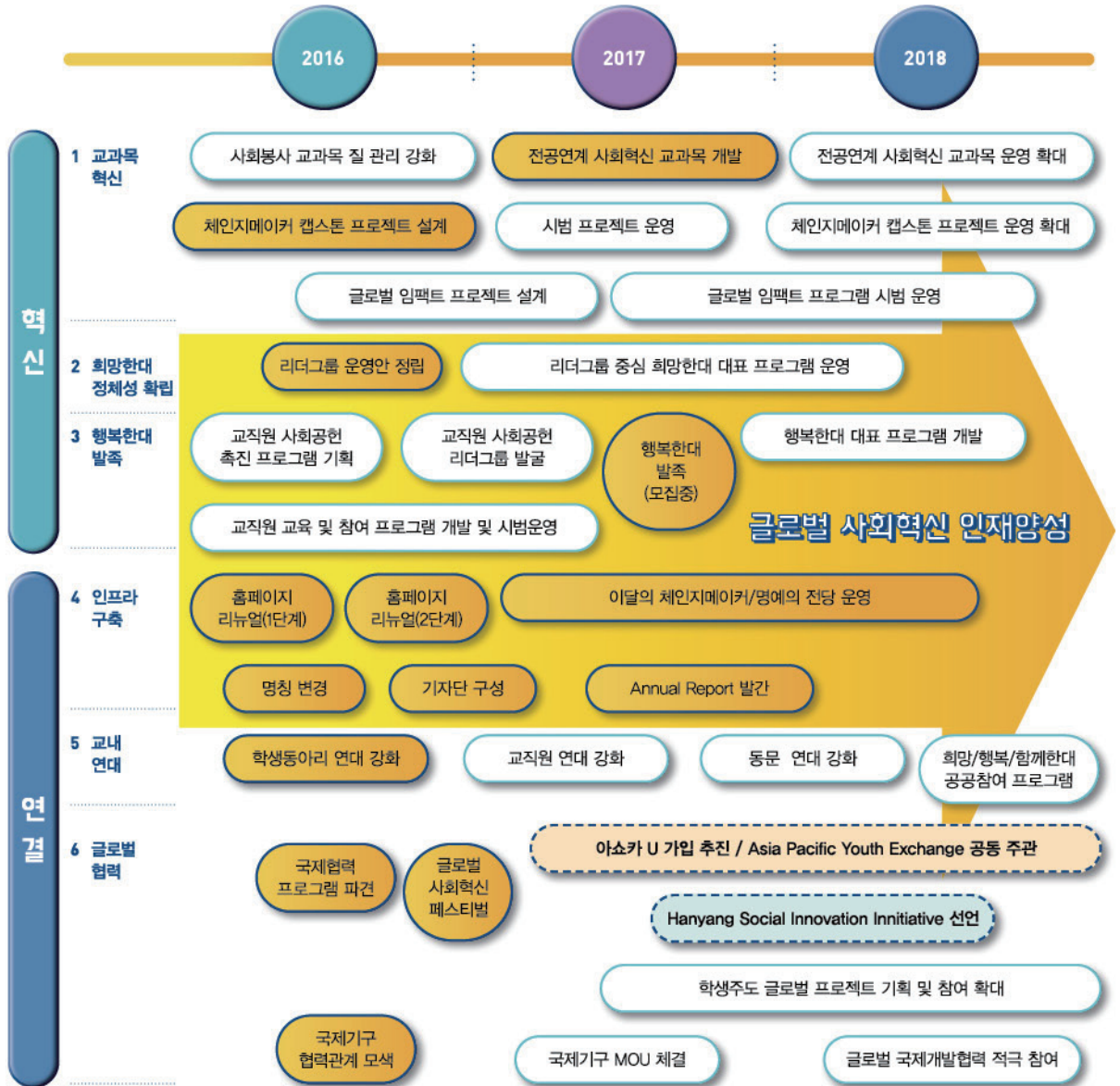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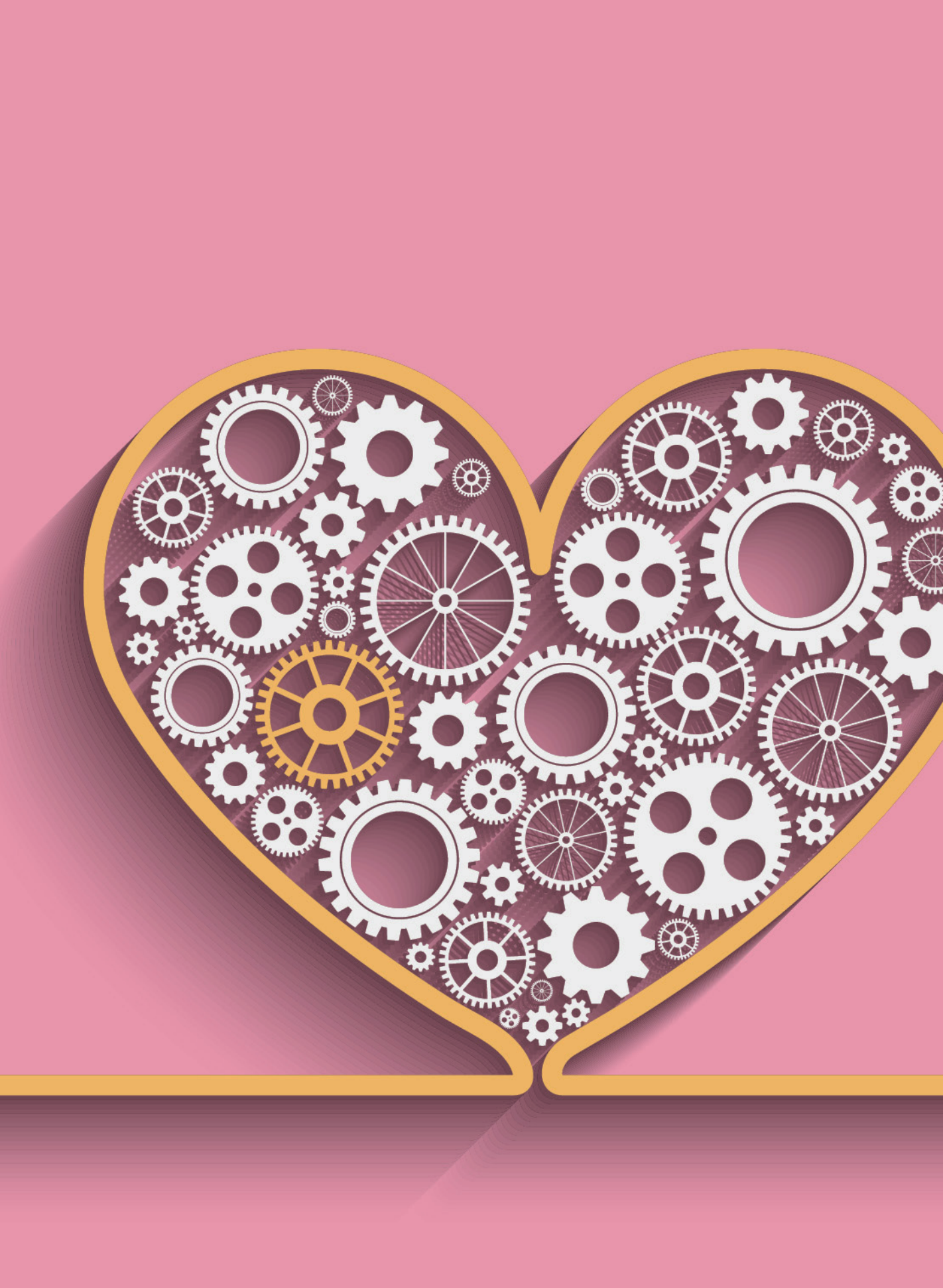
국내외 혁신기관과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사회혁신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

3 사회혁신 Platform 구축



혁신과 연결(Innovate & Connect)을 통한 사람의 실천 로드맵 추진 현황







사랑의 실천

교육, 봉사, 창업

2
Session

교육

ChangeMaker 양성 교육체계

2

① 사회혁신 교과목 신설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한양인의 특별한 1학점 사회봉사교과목에 사회혁신을 더하여 사회문제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적극적 사회혁신 주도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중에 있다. 계절학기 8주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고, 이어지는 정규학기때는 학기제 현장실습과정인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과정을 이수하면 마이크로 전공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은 마이크로 전공 36학점 수료 시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다중전공으로 획득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1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은 성수지역 소셜벤처 지원 기업인 '루트임팩트'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 교육 파트너와 프로젝트 연구와 실행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소셜벤처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청년들과 글로벌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해외 2주 집중 프로그램 APYE(Asia Pacific Youth Exchange) 참여를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워크숍, 토론을 통한 국내 사회적 문제 솔루션을 도출한다. 또한, 본 과목 수강 이후 학기제 현장실습제도를 활용한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교과목 및 사회혁신 트랙과도 연계 가능하다.

프로그램 구성

본 교과목은 총 8주 과정으로 'Intro', 'Learning', 'Project' 3단계로 구성되어 문제 분석과 해결에 필요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Intro'와 'Learning' 사이의 2주동안 사회혁신 해외 집중 훈련 프로그램 APYE(Asia Pacific Youth Exchange)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이슈 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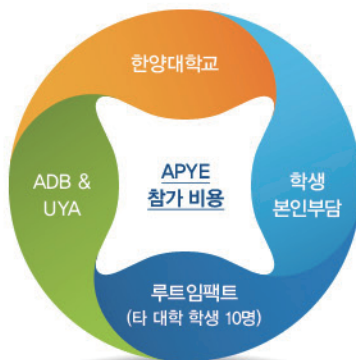
'Intro' (3주 - APYE 2주 포함)

- : 워크숍 및 집중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
- 국내 워크숍을 통한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해 적립
- 2주 해외 집중 프로그램 APYE(Asia Pacific Youth Exchange)참여

'Learning & Project' (5주)

- : 주어진 사회 현상으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
- 팀별 토론, 프로토타이핑 및 고객 공감을 토대로 문제개선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제안을 최종 산출 목표로 하고, 그 과정을 지원할 강사 및 멘토 투입
- 매주 팀 프로젝트 기반의 디자인 사고 및 전략적 사고 수업 병행
- 팀내 커뮤니케이션과 주차별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현황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목적 구체화
- 정규수업 외의 시간 활용하여 과제 프로토타이핑, 고객 인터뷰 및 현장을 관찰하고, 매주 동료 및 현직자 피드백 바탕의 워크숍 및 발표를 진행하며 개인 에세이 작성

장학금



*희망한대 리더그룹,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 : 한양대학교 지원

*한양대학교 교비 지원 범위: 1500만~2500만

2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혹은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획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한양대학교와 성수 지역의 사회혁신기업이 공동운영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으로, 한양대학교 학기제 현장실습제도와 연계하여 장기현장실습 혹은 선택형 4+1 학년제 중 선택 이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구성

•3가지 액션러닝 중 택 1



- 액션러닝 1 :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 과정 중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 혹은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한 프로젝트 실현 및 확산
- 액션러닝 2 : 사회저기업가정신, 사회혁신의 이해 등의 교과목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를 직접 창업하여, 기존의 혁신기업에서의 실습을 통한 개인 소셜벤처 구체화 및 확장
- 액션러닝 3 : Asia Development Bank (AD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및 중기해외봉사 통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 도출 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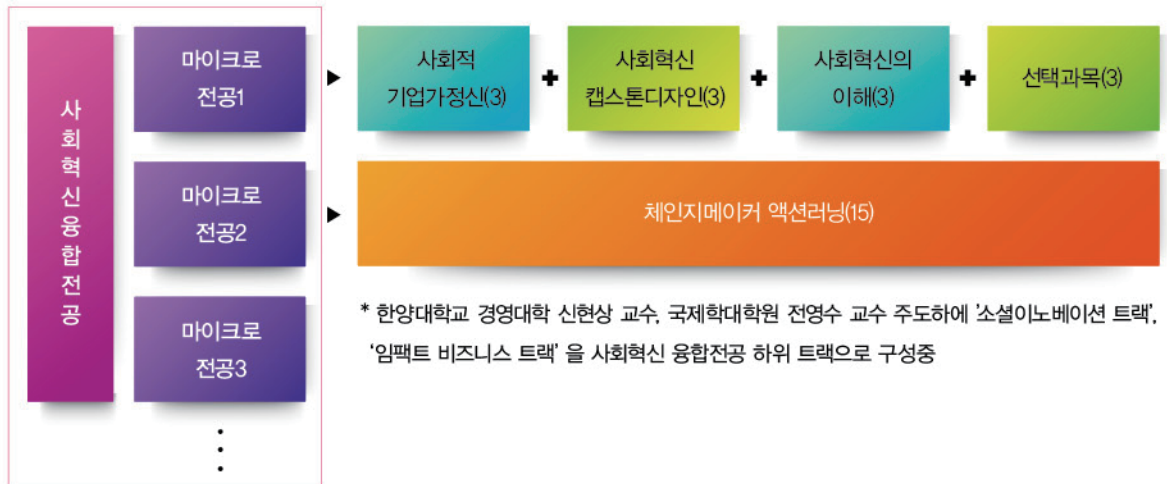
3 사회혁신 융합전공

전공 소개 및 프로그램 구성

대학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을 비롯한 사회혁신 마이크로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사회혁신 융합전공 학위가 부여된다.

사회혁신 융합전공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전공	사회혁신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부전공	사회혁신 교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다중전공	사회혁신 교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신현상 교수,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 주도하여 '소셜이노베이션 트랙', '임팩트 비즈니스 트랙' 을 사회혁신 융합전공 하위 트랙으로 구성중

- 마이크로 전공 1 :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사회혁신의 이해 그리고 사회혁신 교과목 1과목 추가 수강하여 총 12학점 이수 시, '마이크로 전공 1' 획득
- 마이크로 전공 2 :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수강으로 15학점 이수 시, '마이크로 전공 2' 획득
- 마이크로 전공 3 : 마이크로 전공 1,2 와 같이 '소셜이노베이션 트랙' 과 '임팩트 비즈니스 트랙'을 추가로 구성하여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가능

② 대학생 SDGs 체인지메이커 양성 워크숍

2015년 9월 UN 193개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SDGs 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국가별 지역화이며, 한국 대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임팩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를 위한 체인지메이커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 대학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미래의 인재인 학생들이 SDGs 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목표 달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혁신가로서의 체인지 메이커 마인드셋 학습과 실천형 역력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6년 09월 10일, 10월 14일 2회에 걸쳐 한양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고려대 4개의 캠퍼스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함께 모여 대학생 SDGs 체인지메이커 양성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SDGs 달성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관련 대학생 활동 유형이 토론과 포럼 위주인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체인지메이커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인간중심 디자인싱킹 방법론을 체험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토론의 장이었음을 확신한다.



Sess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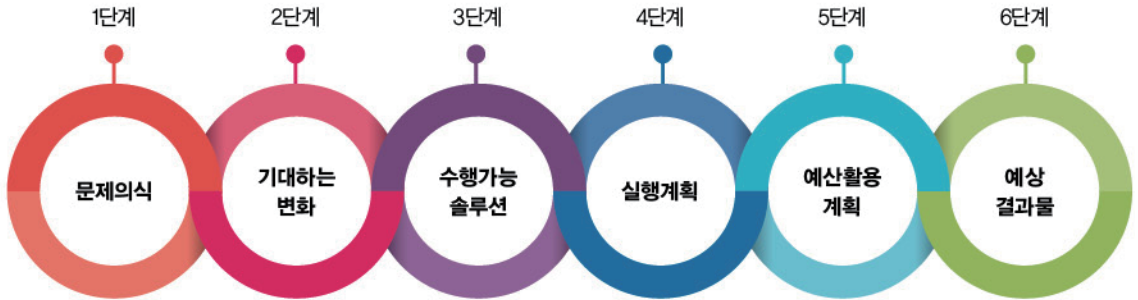
사랑의 실천_ 교육, 봉사, 창업

워크숍은 크게 '팀빌딩 - 오프닝 강의 - SDGs 체인지메이커 워크숍 - SDGs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 Wrap-up' 이렇게 5가지 세션으로 구성 되었다. 간단한 팀워크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워크숍의 핵심 요소인 인간중심 문제해결관점(디자인씹킹)과 체인지메이커 소개 강연을 통한 마인드셋을 함양하고, SDGs 목표 중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적합한 목표를 각 팀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마지막으로 각 필드 프로토타입 검증을 통하여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본 워크숍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일회성 교육과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활에서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혁신가로의 성장을 볼 수 있었고, 참여 팀들 중 우수 아이디어 5팀을 선발하여 2016년 11월 본교에서 진행된 Seventeen Hearts Festival 의 한 순서인 Asian Development Bank Session 에서 발표의 기회도 부여되고, ADB 인증서를 수여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6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프로젝트



우수 5팀

팀명	SDGs no.	프로젝트
행보리	3	캠퍼스에서 '진짜 나', '행복한 나'를 발견해 보자
PADO	4, 7, 12, 16	이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까?
벽wall	4, 10	교내 국제교류활동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 보자
숨쉬는 교실	3	탁하고 답답한 강의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Drop!	7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은 이제 그만!



③ 집중 훈련 프로그램

1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APYE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프로그램)는 Asia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 ADB), Urban Youth Academy(UYA) 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주도 정책제안 프로그램이다. APYE는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실무능력배양과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현지 실사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얼반유스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프로그램(APYE)은 본 프로그램은 2015년 캄보디아 캄퐁툼 지역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필리핀 산타로사(Santa Rosa, Laguna)지역에서 약 100여명의 청년들과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는 이와 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제2차 2016년 8월(필리핀) 10명, 제3차 2017년 1월(필리핀 & 태국) 14명의 한양대 학생들이 그곳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후기

2차

Asia Pacific
Youth Exchange

이지수

APYE에서 얻은 것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SDGs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SDGs에 대해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출국과 입국 후의 나의 내면 속에서 분명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봉사단에서 활동 하면서 나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임은지

APYE 프로그램 참가 이후 우리 나라에만 갇혀 있던 제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해외에 꽤 많이 나간 편입니다. 이전까지의 출국이 모두 여행 목적이었지만, 이번 필리핀으로의 출국은 여행 목적이 아닌 첫 번째 여정입니다. 여행 목적이었다면 불가능했을,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구촌의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느낄 수 있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나 듣던 '지속 가능한 개발'이 보다 자세하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의 중요성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작은 꿈도 생겼습니다.

단지 필리핀에 방문하고 SDGs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탁상공론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겪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데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앞으로 SDGs관련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혜린

이지은

최나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먼저, 사소한 것부터 라는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멋진 발표들을 들으면서 가슴 벅차게 동기부여를 받았던 나를 잊을 수 없었다.

박찬영

일전의 해외봉사활동에서 느꼈던 것처럼 특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를 열정도 좋지만, 간절함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기회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는 전혀 달랐다고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삶과 실상에 적용하려고 하고,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제 꿈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Local immersion을 통해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고 세상이 발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과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너무 좁고 세상은 정말 넓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을 더 크게 가지기 위해 더 큰 세상에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영준

SDGs가 꽤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팀 주제였던 에너지 분야는 기술 발전과 막대한 자본금을 요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메캄퐁이라는 마을로 타깃을 설정하고 여러 대안들을 대입해보며 불가능한 것을 줄여 나가보니 커피 찌꺼기라는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을 떠올릴 수 있었다. 세계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씩 에너지의 자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국가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져야 함을 느꼈다.

김지민

3차

Asia Pacific
Youth Exchange

2 SVYE

Social Venture Youth Exchange(SVYE 사회적 벤처기업 청년교류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의 링크(LINC) 파운데이션, ASB-MIT(말레이시아), 아시아개발은행(ADB), 얼반유스아카데미, 말레이시아 글로벌 혁신창조센터(MaGIC)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층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고안, 운영하여 개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회 SVYE는 2017년2월3-10일 사이에 진행 되었으며 한국에서 30명의 참가자들, 말레이시아의 30명의 참가자가 각기 팀을 구성하여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5가지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SVYE 프로그램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대표 청년들의 정책에 관한 세션 발표와 대표 토론, 그리고 각 대표 관계자들이 컨퍼런스의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인식을 함양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로 연결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팀단위 창업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슬럼화, 교육소외, 환경문제 등의 실제의 현장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질문하며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봉사

글로벌 사회공헌 리더십 배양

2

① 사회공헌 & 사회혁신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안에서는 건학이념 '사랑의 실천'에 걸맞는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UN의 공동목표인 SDGs 17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SDGs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 십시일밥

'십시일밥'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1~2시간 동안 대학교 구내 식당에서 시간을 이용해 자원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 대신 식권을 구매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기부하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는 10명의 학생들에게서 1개의 스푼을 수집 할 수 있으며 수집 된 쌀 10스푼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을 위해 쌀 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수업을 수강 한 학생을 주축으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다른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전국 27개 대학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2,700건의 티켓이 약 600명의 취약한 동료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2 희망한대 리더그룹 활동



1_ un ngo 컨퍼런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최초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한 전세계 NGO리더 2,500여명이 모이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전세계 대표적인 NGO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리더그룹의 역량을 강화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2_ 학생 기획 봉사 프로그램

성동구 내의 다양한 봉사 기관(장애인 복지관, 영아원, 구청 자원봉사 센터)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를 접해보는 것뿐 아니라, 봉사에 관한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문화를 확대시키고자 하게 된 희망한대 리더그룹 활동



일일 멘토링(이든아이빌) -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 멘토링. 아이들의 꿈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련학과 학생과 매칭 후 진로에 관한 현실적인 맞춤형 멘토링

캠퍼스 투어(성동구 장애인 복지관) -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또래 장애인들의 현실로, 대학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은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 친구들과 캠퍼스 일일 투어 진행

마장동 벽화 봉사(성동자원봉사센터) - 지역사회의 어두운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는 벽화 봉사

3_ Feel the SDGs

UN 193개국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전교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로, SDGs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 포스터 부착하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3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한 청송 겨울나기 사회공헌 활동

2016.11.25 ~ 2016.11.26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청송 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겨울나기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는 공헌 활동으로 한양대학교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 재학생, 그리고 네이버 관계자와 함께 협력으로 이뤄졌다. 산바람이 차가운 청송군 부동면 항리마을의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문풍지 작업과 비닐로 창문도 덮어드리고, 추운 날씨에 수도가 얼지 않도록 동파방지 작업도 함께하며, 찾아오는 인적이 드물어 적적하신 어르신들과 담소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활동이었다.



4

마장동 노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프로젝트

2016.12.02 ~ 2016.12.17

실외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생하게 되는 성동구 마장동 지역의 노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한양대학교 학생 3명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하였다. 비탈길이 많아 낙상사고 위험이 있는 특정 길을 중심으로 가파른 길을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활동으로 11명의 학생과 1명의 직장인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 방문 점검으로 수시로 보완 할 예정에 있다.



5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네팔 사업 현지 방문 사회공헌 활동 2017.02.13 ~ 2017.02.20

한양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네팔 소셜벤처 'Eco-Farmket'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교수2명 직원 1명 학생 7명이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친환경 화장실인 'ECOSAN'을 건축하고, 화장실에서 생산된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 가능한 인근의 밭을 구성하고 돌아왔다.



6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필리핀 사업 현지 방문 사회혁신 프로젝트 2017.02.24 ~ 2017.02.28

한양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필리핀의 또 다른 소셜벤처 'Larga! Santa Rosa' 를 전공과 연계한 사업 중간 피드백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학생 5명과 직원 1명이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Eco-tourism 이라는 테마 아래 짜인 관광 루트의 신선함과 독특함을 경험하고 관광자원 자체의 매력의 충분함을 보았으며, 플랫폼이 정식 런칭되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목적의 달성을 기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② 한양 체인지메이커 멘토링

1 다문화 멘토링 사업_나눔 지기

심영우(철학)

Q _____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_____ 군대에 가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원 강사 두 가지 길을 놓고 진로를 고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공부했던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원에서 조수로 일하면서 만나 본 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달랐고, '교육자'에 대한 메울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적당한 피로감을 느낄 때, 새로운 진로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 후 복학을 해서는 새로 갖게 된 꿈을 이루어 내고자 여념이 없었지만 마음 한 켠에는 또 아이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던 차에 대학생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하였고, 지난 일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Q _____ 어떤 형식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_____ 주기적으로 멘티의 학교를 방문하여 부족한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멘티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고, 때때로는 함께 문화공연을 즐기며 멘토링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Q _____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_____ 처음에 다문화 멘토링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멘토링을 이미 여러 번 해본 아이라서 그런지 기존의 선생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의 방식에 불만을 품는 멘티에게 적잖이 마음이 상했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링 활동 시에 간식거리를 챙겨와 주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표시 등) 또한 공부 보다는 학교 생활이나 가정사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서 멘티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피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더욱 공부만 가열차게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멘티는 멘토링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다는 모습과 표정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멘토링 담당 선생님께 이러한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여쭙었고 선생님은 제게 멘토링 활동이 반드시 공부일 필요는 없다. 멘토 선생님께서 다방면으로 여러가지를 시도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미래의 꿈을 갖게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정말 도움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식거리, 보드게임 등 멘티와 친해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Q _____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_____ 멘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알려준 연락처로 간단한 인사도 제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도 친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며 끙끙 앓던 문제들도 어느새 제게 상담을 요청해왔고 이성교제, 급우들과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점차 마음을 열어주고 소통하고자 하는 멘티가 고마워 적극적으로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멘토링 담당선생님과 멘티의 담임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뵙고, 멘티가 표현이 서툴러 말 못한 이리이러한 고민이 있으니 선생님이 꼭 아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담당 선생님께 힘들음 토로했었는데, 어느덧 멘티와 같이 문화체험활동 및 놀이도 함께 찾아 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했다는 점이 보람차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Q _____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_____ 비록 멘토의 역을 맡고 있지만 제가 멘티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미성숙했음을 되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또 부족한 제 자신의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_나눔 지기

오동건(실내건축디자인)

Q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때 음악 공부하다가 입시 이후, 진로를 바꿔 삼수 끝에 인문계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믿어주셨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로인하여 제가 원하던 한양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와 다르게 상황이 좋지 못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보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과외로 돈을 번 것을 개발도상국 아이 후원을 시작으로 우연히 지역 공부방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 다문화 등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개발도상국보다 더 가까운 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던 활동을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멘토링 활동을 한 기관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A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한 곳은 남양주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센터장님은 목사님이자 사회복지사이십니다. 교회 재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어렵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에는 매일 오는 초, 중 아이들이 20~30명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경 선생님들이 매주 와서 학생들에게 영, 수를 가르치긴 하지만, 훈련이나 부대 내 사정으로 못 오실 때가 많습니다.

Q 어떤 형식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저는 여기서 주로 중, 고등학생을 맡아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고 싶는데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 멘토링 외에도 학생들과 영화, 뮤지컬, 전시 등을 보기도 했고, 제가 기획했던 연극에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오기도 했습니다. 문화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환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실제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봤던 작품으로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Q _____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멘토로서의 마음가짐과 가장 보람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_____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가정사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들어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와는 담을 쌓았던 학생들이어서, 여러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가진다거나, 그것을 목표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게 말해줄 때가 멘토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저를 서먹해하던 초,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할 때, 아이들과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책임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Q _____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_____ 제가 일했던 만큼 장학금이 나와서 저도 수혜를 받고, 받은 그 장학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센터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본 사업에 애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하는 동안 제가 목표했던 만큼 학생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성취감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2016 한양 ChangeMaker

학생 기자단이 교내외 곳곳에서 사회공헌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학내 구성원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되었던 2016 한양 ChangeMaker 들을 소개합니다. _학생 기자단: 이유진(국어국문), 이탄(경영), 이혜주(국어국문), 황연교(정책)

2016

6월의 ChangeMaker

홍혜린(정책)

무지개 1:1 멘토링 우수 활동자

봉사,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_
오랜 인연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내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봉사를 하면서 저도 원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겁고, 내가 사회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눔을 심고 달리는 푸드 트럭_
고푸다-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다

“푸드 트럭은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미, 문화, 나눔도 심고, 음식을 만들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음식을 나누는 것의 의미로, 최종적으로 저는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푸드 트럭을 만들고 쓴 가격에 대여를 해서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7월의 ChangeMaker

황윤식(에너지공학)
사회적 기업 '고푸다' 대표



8월의 ChangeMaker

윤미소(파이낸스경영)
교육 봉사 우수 활동자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서 찾은 가치_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봉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이 더 많은 창의성과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상호작용은 서로 주고받아서 커지는 거니까요.”



9월의 ChangeMaker

김영우(경영)
장애학생 도우미,
금융협동조합 '키다리은행'
우수 활동자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다_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는 삶

“힘들 때, 봉사를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계속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다시 다른 활동을 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도움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저만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도 변하게 되었죠.”



10월의 ChangeMaker

최규선(경제금융)
소셜벤처 'station 208' 대표

기부의 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생각_
300원으로 시작되는 변화, 대트리스

“기부를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 부담은 없었으면 했어요. 저희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가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걸 중점으로 운영을 해 나가갈 것 같아요. 기부에 대해서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합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공헌을 꿈꿔봅니다.”

11월의 ChangeMaker

이호영(경영)
학생 주도 공헌 동아리
'십시일밥' 대표

더 나은 우리를 위한 나의 한 시간_
공강 시간에 발견한 공동체의 힘, '십시일밥'
"사람들이 1시간 일해서 식권을 기부하는 것 자체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십시일밥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봉사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대학교에 이런 봉사, 즉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봉사, 우리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하다_
봉사와 함께한 대학생활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교육 봉사 때 만난 학생들이 여전히 연락도 오고 그렇게 꾸준히 저에게 의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활동을 하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서 나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월의 ChangeMaker

박보미(식품영양)
점역봉사,
환경봉사동아리
'휴머니스트' 우수 활동자

2017

1월의 ChangeMaker

가희지(국어국문)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우수 활동자

국어 선생님을 꿈꾸는 나의 특별한 시간_
나의 전문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다른 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 봉사가 가장 뿌듯했어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 되었다고 얘기만 들었지,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는 못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 봉사를 통해 몽골멘티 열행을 만나면서 그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전공인 국어국문학과와 심화 전공과목 중 다문화 가정, 이주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듣고, 저만의 교육 철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인의 특별한 1학점_
주체나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 사회공헌
“자원봉사 활동은 그야말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 참여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학점 1학점으로 정한 겁니다. 사회봉사단이 사회혁신센터가 되었는데 봉사에서 혁신으로의 이동은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살아있는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월의 ChangeMaker

주성수 교수(공공정책대학원)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초대 단장

창업

공유가치 창출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2

①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는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사회문제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소셜벤처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소셜벤처들은 향후 전공 연계 현장실습, 사회문제 해결 공동연구, 글로벌 사회혁신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 세계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고, 지원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국내 창업자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회혁신센터에 제출하면 사회혁신센터, LINC사업단의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국내/해외 공동창업자 : 사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17HEARTSFESTIVAL에 초청,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에 공동창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본교 학생이 있다면 사회혁신센터, LINC사업단, 글로벌기업가센터 등 교내 기관의 구체적인 평가와 협약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1

대트리스 STATION208

Interactive Mini-donation Platform

Founder	최규선(경제금융)
Cofounder	김은서(산업공학) / 양재형(경제금융) 임경훈(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대트리스'란 이름의 신개념 소액기부 플랫폼은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개발했고, LINC 사업단,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후불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1회 300원이 기부되며, 기부금이 쌓이는 모습이 테트리스 블록으로 묘사된다. 한양대학교 최규선(경제금융), 김나연(응용미술교육), 여다은(경영) 그리고 국민대학교 임경훈학생이 설립한 소셜벤처 'station 208'의 프로젝트의 일부인 대트리스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란 교양수업에서 시작되었다. 기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한 팀이 돼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했다. 기부는 '안 하는 것'이 아닌 '못 하는 것'이라는 접근으로 이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액기부 캠페인을 떠올렸다. 이들은 '쉽고 재밌게 소액기부'라는 슬로건 아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하철역이라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기부금이 쌓이면 테트리스 블록이 쌓이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테트리스라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접목시켰다. 이를 위해 한양대역에 기둥을 설치했다.

대트리스는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1차 프로젝트는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다. 1주차의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수업을 위해, 2주차는 저소득층 중학생의 교복을 위해, 3주차는 미숙아 치료비 지원을 위해, 4주차는 화장실 보수 지원을 위해 전달된다. 1차 프로젝트의 결과 4주간 3,000여명 한양인의 참여로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기아대책본부를 통하여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2차 프로젝트는 2016년 11월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 Seventeen Hearts Festival 의 일부행사로 교내 공헌 단체인 십시일밥과 공동으로 교내 미화/경비 근로자분들께 잠깐의 휴식과 따뜻한 설렁탕을 대접해 들기 위한 모금을 기획을 하였다. 그 결과, 총 1,090번 참여로 327,000원이 모였고, 수고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과 식사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 할 수 있었다. 최근 3차 프로젝트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와 LINC 사업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5개의 해외소셜벤처중에 하나인 네팔 사업을 위한 모금이다. 네팔 현지 자생적환경 마련을 위한 화장실 건설에 사용 예정인 모금액은 총 7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한양대학교 체인지메이커 팀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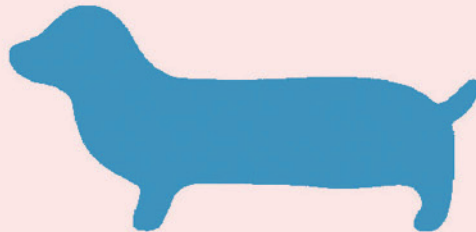


2 라프 - L.A.F.E Leaders And Financial Education

Founder	김동환(경영)
Cofounder	한경수(경영) / 김보경(파이낸스경영) 박지원(독어독문) / 차수정(경제금융)

Leaders And Financial Education(이하 '라프')는 대학생들의 재무·금융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이다. 대학생들의 25%는 부채를 질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은 그들의 본업인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는 그들을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낮은 시급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제공할 뿐이다. 금융 회사에 구원을 요청하지만,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할 청년들의 가능성을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학생 대출금 1조원 이상이라는 현실은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

함께의 가치와 동문이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한양대학교 키다리은행이 출범했다. 숫다리 펀드를 통한 대출이 당연한 금전적 문제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아진 생활일 뿐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자금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한정된 자원을 관리해 여러 목표들을 달성해, 그들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해준다.



L.A.F.E WITH KIDARI

3 탐방탐방 내 손 안의 박물관, 역사를 신나게

Founder	신강수(정책)
Cofounder	이동규(정책) / 김나연(응용미술) 유은서(응용미술) / 노웅기(스포츠산업)

‘한양대 캠퍼스 탐방’ 프로젝트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이하 한양대)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한양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플레이어는 한양대 곳곳에 분포한 실루엣을 찾는 게임을 하는 동시에 한양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게임에는 3가지 컨셉의 맵이 존재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저주에 걸린 한양마을’, ‘오염된 한양대’, ‘대학 로망’. 플레이어는 위와 같은 스토리가 담긴 맵을 클리어하며 한양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평소 꿈꿔오던 대학교 로망을 게임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

‘한양대 역사관·박물관’ 프로젝트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역사관을 방문하는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낮은 방문율과 참여율로 인해 다양한 홍보 요소와 콘텐츠를 고민하는 한양대학교 역사관과 박물관을 위해 탐방 탐방이 한양대의 역사를 담은 물건들을 실루엣으로 제작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역사관과 달리 테마에 따라 콘텐츠가 다양하게 바뀌는 박물관의 경우 테마에 맞춰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영향〉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교육형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관람객이 박물관이나 역사관을 관람하는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 함으로써 관람에 대한 집중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실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관과 박물관과 협약하여 방문객들의 흥미와 참여율을 이끌어내어 역사의식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사회적 게임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4 TICKET Univ. 티켓유니브

Founder

고지원(성악)

Cofounder

황하석(경제금융)

티켓유니브는 예체능 대학생들과 관객을 이어주는 티켓 플랫폼으로, 공연 기회가 적고 관객도 많이 없는 예체능 대학생들에게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학교를 연결시켜주어서 미래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는 공연 정보와 창의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티켓유니브의 목표이다.

대학생들의 공연정보를 '티켓유니브'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별도의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이 연극 등을 직접 해봄으로써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힘쓰는 방식이며, 추후에는 심리치료를 연계하여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문화로 다가갈 예정이다.

향후사업계획

- 교육부와 문체부 연계
- 팸플릿을 통한 광고 + 팬덤문화 형성
- 심리치료와 연계하여 치료프로그램 개발
- 기획공연을 제작 할 수 있는 공연 크라우드펀딩 확대
- VR 기기를 활용한 간접적 무대체험



② 해외소셜벤처

1 Aquaponics

해외창업자	Jacklin Elizabeth Mazumder
한양대 공동창업자	전주현(국제), 홍준택(국제)
Project Site	Dhaka, Bangladesh

Aquaponics란?

Aquaponics는 전통적인 방식과 수경재배 방식을 혼합한 농업 방식으로, 프로젝트 Aquaponics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농산물과 aquaponics에 필요한 물고기를 기르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함으로써 주민들의 영양상태와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셜벤처이다. Aquaponics는 주민들에게 재배 방식을 교육하는 해외봉사, 토지와 온실개발 영역에서 농업 및 건축학부 등의 전공 연계를 통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농업대학, SWAPNO백화점, NGO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Aquaponics에 활용될 토지에 외벽 건설, 보안문 설치를 완료하고 토지와 온실개발을 위해 현지 농업건설팀, Win Incorporation과의 계약도 완료된 상황으로, 프로젝트 완료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되겠지만, 2017년 후반기에 학생 체인지메이커 팀 파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셜벤처 우수 모델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는 프로젝트이다.

※홈페이지 : <http://www.agricamp.com.bd>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agricamp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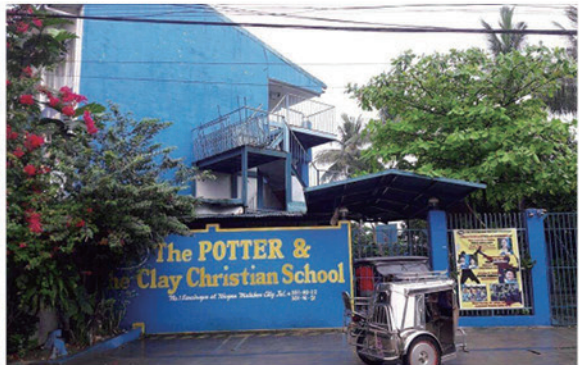
2 Center for Learning

해외창업자	Maria Celine Santos
한양대 공동창업자	임은지(경제금융)
Project Site	Malabon, Manila, Philippines

Center for Learning이란?

Center for Learning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12세 이하 아이들 중 사회적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행동 및 정서, 의사소통,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특수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이다. Center for Learning은 현재까지 현지 학교 및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센터의 위치 선정과 교과개발을 담당할 교사 섭외를 완료하였고, 향후 한양대학교와 유아, 특수, 초등교육, 교구 개발과 같이 교육 관련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해외봉사활동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는 정부 교육기관을 비롯한 지자체와 학교를 통한 협업이 진행되고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와 원아모집의 과정을 거쳐 2017년 후반기에 개원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enter-for-Learning-and-Development-for-Children-982876751846659/>



3 Eco-Farmket

해외창업자	Bisam Gyawali
한양대 공동창업자	박형준(경제금융)
Project Site	Kathmandu, Nepal

Eco-Farmket 이란?

Eco-Farmket은 친환경 위생 화장실 ECOSAN을 제작하여 지역의 위생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ECOSAN에 쌓인 배설물을 유기비료로 전환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식량,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농부들이 직접 유기농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셜벤처이다.

2017년 2월 한양대학교 체인지메이커팀 현장 방문을 통하여 1차 ECOSAN 화장실 건축을 완성하여, 화장실에서 모아지는 배설물을 유기비료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기농 작물 판매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Eco-Farmket은 해외봉사과 건축, 도시개발, 농업, 보건 등의 다양한 전공과 밀접한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학협력 우수모델로서 연구하고 공유하여, 현장 답사를 통한 KOICA, 네팔의 농림, 보건, 도시개발부와 같은 국제개발기구 및 정부 기관과 소셜벤처를 연결해주고 다양한 방법(대트리스 모금, 봉사단 파견)을 통하여 사업 정착 후에도 마케팅 방안과 국내 사회혁신기업과의 사업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네팔 현지에서는 농림, 보건, 도시개발부 등의 여러 정부기관, 지역 대학, UNDP, AIESEC, NPO를 통한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4 Larga! Santa Rosa

해외창업자	Christian Manahan
한양대 공동창업자	변주영(화공)
Project Site	Santa Rosa Laguna, Philippines

Larga! Santa Rosa란?

Larga! Santa Rosa는 도시와 전통, 관광명소, 로컬음식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친밀하고 독창적으로 제공하여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광 코디네이션 소셜벤처이다.

Larga! Santa Rosa는 개발 과정에서 2017년 2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동아리 'Tium' 봉사단을 파견하여 벤처 런칭 이전 첫 고객으로의 피드백과, 관광산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실질적인 조언과 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보보안,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도 경영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정보시스템전공 등과 전공 연계 기반 전략적 협력관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 현지에서는 꼼꼼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제작을 마치고 현재 마케팅과 함께 시장 시험을 통해 보완과 디버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ADB, 정부기관, 지자체 등 개발 기구를 통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영상 : <https://youtu.be/hPCxZYfkY4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largaproject>



5 NinoNina Clothing

해외창업자	Maria Carmela Suarez
한양대 공동창업자	이지수(스포츠산업)
Project Site	Smoky Mountain, Manila, Philippines

NinoNina Clothing이란?

NinoNina Clothing은 양질의 의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와 경제적 능력 부재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농업재료를 활용한 의류 제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이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소, 기계, 인력 확보를 완료하고 샘플 제작을 통해 잠재고객에게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한양대학교 재학생 공동창업자를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하여 창업자간의 협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현재는 경영학부 혁신Lab과 협력하여 NinoNina Clothing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NinoNina Clothing은 의류제작, 제품 마케팅과 같은 영역에서 경영학과, 의류학과 등 교내의 다양한 학과와 전공이 연계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함과 동시에 필리핀 현지에서도 필리핀 최대 NGO Gaward Kalinga 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inoNinaCo/>





QUALITY

TIME

GOAL

CREATIVITY

TARGET

SIGN

SUCCESS

IDEAS

SALES

BUSINESS

VISION

MARKET
CAPITAL

SOLUTION

TEAMWORK
MANAGEMENT

PLANNING

INSPIRATION
COMMERCIAL

TEAM

INNOVATION

PROGRESS

GROWTH

MOTIVATION

INNOVATION
MARKETING

PLACEMENT

CORPORATE

ANALYSIS

REALIZATION

PROGRESS

RISK

TARGET MARKET

PRICE

LEADERSHIP

아리랑 (我理朗)

세상을 향한
나를 찾는 즐거움

Session

세상을 향한 나를 찾는 아리랑 (我理朗)

아리랑(我理朗)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로 알려진 '아리랑'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나 아(我), 이치 리(理), 즐거움 랑(朗),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을 느끼자!'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목표로 UN 193개국이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17개의 하트로 형상화하여 '2016 Hanyang Seventeen Hearts Festival' 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가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는 Arirang for Neighbors,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알아가는 기쁨의 기회를 제공하는 Arirang for Youth,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청년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기쁨을 공유하는 Arirang for Globe.

본 축제의 모든 과정의 핵심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사회의 여러 과제와 맞물려 사회공헌을 뛰어넘어 사회혁신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1 Arirang for Neighbors

대학생 소액기부 참여 캠페인 대트리스 프로젝트_9/20~10/20

링크사업단의 지원으로 창업한 소셜벤처 'STATION 208'과 함께하는 대학생 소액기부 캠페인이 Seventeen Hearts Festival의 첫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소액기부라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모델을 구축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캠페인은 4주간 매주 다른 주제로 모금을 진행하였다. 1주차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놀이영어수업을 위한 강사비와 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2주차는 저소득층 중학생 아이들의 입학 기념 새 교복 선물을 위하여, 3주차는 이른 등이(미숙아) 아동의 발달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보수 지원을 위하여 모금이 진행되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3,000여명의 한양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로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금되어 기아대책분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 되었으며, 주요 언론사 기사와 영상을 통하여 소개되어 사회적기업 'STATION 208'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Arirang for Youth

아리랑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_9/22~9/25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현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22~25일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산시교육청 공동 주관의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는 한양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문의 체험을 통해 '참된 나를 찾는 기쁨'과 '세상에 기여하는 기쁨'을 맛보자는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양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그리고 교직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한양인이 함께, 융합 교육과 연구에 대하여 Engineering, Art & Technology, Science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성하였다. 모든 체험은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교육기부박람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각 분야의 학문이 융합해서 어떻게 가치 있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동으로 마련한 SDGs 코너는, 청소년들이 체험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그리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얻기도 하였다.

Arirang in Art & Tech 과학과 예술이 만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창작극 아리랑 공연, 예술작품 내려티브 VR 시연, 마찰전기 활용 의상 디자인)

Arirang in Engineering 공학 기술로 어떻게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초전도 기술, 압전 기술, 마찰전기 활용 기술 시연)

Arirang in Science 빈곤, 환경, 건강,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환경을 살리는/건강을 지켜주는/에너지를 개발하는/빈곤을 해결하는 과학기술)

Seventeen Hearts Event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3 Arirang for Globe

Youth Impact for 17 Hearts in Hanyang 국제 사회공헌 컨퍼런스_11/9~11/11

축제의 마지막 세번째 프로젝트는 국제 사회공헌 컨퍼런스로 진행 되었다. 이는 2016년 여름, 2주간(7/31~8/13)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제2회 Asia Pacific Youth Exchange(아시아개발은행(ADB), Urban Youth Academy 공동 주관)의 후속 글로벌 사회공헌 컨퍼런스로,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의 주도로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사회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3일간의 컨퍼런스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방문한 해외 학생들과 UN 관계자 및 국내 학생들과 함께, 아산시 생태복원 우수사례인 실개천 살리기 사업현장을 견학하여 의미있는 사회공헌 체험활동도 진행하였다. 컨퍼런스는 공동 주관 기관인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링크사업단, Asian Development Bank(ADB), AIESEC-Korea 가 주축이 되어 5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 사회공헌 대학별 사례 발표, 한국 전통 뮤지컬 '아이랑' 공연, Asia Pacific Social Venture Idea Competition, Asian Development Bank Session, 그리고 마지막은 AIESEC-Korea Youth Speak Forum 이다.

대학생 사회공헌 대학별 사례 발표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3개 대학교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주도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제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경험한 수동적인 사회공헌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생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학교의 지원과 기회에 대해 알리고,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푸다(황윤식/한양대)

보늬(이소정/숙명여대)

카다리은행(한하원/한양대)

Ewha friends in the US(이예원/이화여대)

대트리스(최규선/한양대)

십시일밥(이호영/한양대)

AIESEC SMU(이수호/숙명여대)



Session 3
아리랑(我理朗)
세상을 향한 나를 찾는 즐거움

Korean Traditional Musical “Arirang”

“나는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조명, 무대 제작, 음향, 광학, 문예창작, 각색, 의상디자인, 보컬 등 다양한 전문성이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됨을 보여준 뮤지컬 ‘아리랑’

사회공헌 컨퍼런스의 일부분으로 본 공연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한양대학교 사회공헌 단체 ‘십시일락’에서는 교내 미화 근로자 분들께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청소 당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십시일락’ 이벤트를 진행함으로, 캠퍼스 학생들이 사회공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sia Pacific Social Venture Idea Competition

제2회 Asia Pacific Youth Exchange(아시아개발은행(ADB), Urban Youth Academy 공동 주관)에서 선발된 해외팀 8팀과 한국학생 5팀으로 구성된 총 13팀의 국내외 학생들이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로 접근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경연이 진행되었다.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연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4팀을 선정하여 링크단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사회봉사단장상, UYA대표상으로 시상 하였다.

구분	프로젝트	수상자
링크단장상 (해외 참가자 중 대상)	Aquaponics	Jacklin Elizabeth(방글라데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국내 참가자 중 대상)	Behavioral change game	소재우(한양대)
사회봉사단장상 (국내 참가자 중 우수상)	Interactive donation platform	최규선(한양대)
UYA대표상 (해외 참가자 중 우수상)	WIN-WIN project	Uchral Ganbaatar(몽골)



Session 3
아리랑(我理朗)
세상을 향한 나를 찾는 즐거움

창업 지원 협약식

APSVIC(Asia Pacific Social Venture Idea Competition)에 참가한 8개의 해외 팀 중 5팀이 한양대 학생과 공동 창업자로 매칭 되어, 링크사업단에서는 창업자금과 전문 컨설팅을, 사회봉사단에서는 학생봉사단 파견을, ADB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국제기구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업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는 창업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속개발가능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프로젝트	제안자	co-founder
Eco-Farmket	Bisam Gyawali(네팔)	임충만
Center for Learning	Maria Celine Soriano Santos(필리핀)	임은지
Larga Santa Rosa	Christian Cetron Manahan(필리핀)	변주영
NinoNina Clothing	Maria Carmela Bernal Suarez(필리핀)	이지수
Aquaponics	Jacklin Elizabeth Mazumder(방글라데시)	홍준택, 전주현



Asian Development Bank Session

ADB “The beat of 17 Hearts for the World”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개 대학 학생들이 'Change Maker'로 1개월간 SDG 17개의 목표를 바탕으로, 캠퍼스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여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5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에 참여한 5팀에게는 ADB 인증서를 수여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장려하였다.

팀명	프로젝트
행보리	캠퍼스에서 '진짜 나', '행복한 나'를 발견해 보자
PADO	이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까?
破wall	교내 국제교류활동으로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 보자
숨쉬는 교실	탁하고 답답한 강의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Drop!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은 이제 그만!



혁신을 향한 구노를 향한 연구, 연대, 협력



4
Session

혁신을 향한 _ 연구, 연대, 협력

4

HUGE(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를 통한 국내외 연대 강화 및 협력

사랑을 실천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둔 한양대학교는, 사회공헌과 사회혁신 분야에서 이미 입지를 다신 여러 기업들과의 통해 지역사회, 세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위한 교육, 실무,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1 2016년 MOU 체결 기관



2 2017년 국내외 연대 강화

1_ Ashoka U 가입

사회혁신 선도대학으로 도약

2_ Asia Pacific Youth Exchange HYU-ADB-UYA 공동 프로그램으로 확장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에서 롤모델이 되는 사회혁신기업가 들을 지원

3_ Seventeen Hearts Festival 브랜드 정립

APYE, SVYE를 통해 양성된 체인지메이커, Global Social Ventures 추진 사례, 희망한대 리더그룹 프로젝트, 멘토링 연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국제기구, 성수밸리 사회혁신 기업, 지자체, 국내 대학들이 함께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

이와 같은 기업들과 업무 협약에 더하여, 한양대학교는 거리적 이점으로 교육, 실습, 프로젝트, 커리어 등 다방면에서 업무 협력이 가능한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혁신기업 클러스터 '성수밸리'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역의 사회혁신기업과 전략적 동반 성장을 기대하며,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에서 롤모델이 되는 사회혁신기업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2016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01

•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봉사_2016 사랑의 연탄 배달_사근동, 마장동

02

• 2016_1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1,3
_강미영 교수(교육대학원), 박선아 교수(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 2016_1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2,4
_주성수 교수(공공정책대학원)
• 희망한대 리더그룹 3기 임명식

03

• 2016_1학기_사회봉사 교과목
• 희망한대 리더그룹 3기 비전수립 워크숍
• 2016_1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1
_김성환 사회봉사단장(국제학부 / 전 외교부장관) 대학과 사회봉사

04

• 행복한대 사회공헌 프로그램1_종이비행기 접기 교실_이승훈(종이비행기 국가대표)
• 고품레이스_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창조경제 플레이스
• 행복한대 사회공헌 프로그램2_풍성아트 체험교실_와우파티(풍성아트 강연 업체)
• 희망한대 사회공헌 활동1_노숙인 급식봉사_거리의천사들
• 2016_1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2
_성태현 교수(전기공학) 대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봉사 리더십
• 행복한대 사회공헌 프로그램3_대한민국 희망 숲 만들기_한국장애인복지재단

05

• 개교77주년 기념 사회봉사상 시상_홍혜린 외 30명 수상
• The cafe 해누리(장애인바리스타카페) 한양대 운영
• 2016_1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3
_Bekay Ahn(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_대학 사회봉사의 Paradigm Shift : 필란트로피(Philanthropy)

06

• 제66차 UN NGO 컨퍼런스(세계시민교육: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_경주화백컨벤션센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년 미니포럼 개최_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희망한대 리더그룹 3기 봉사is원들1_이든아이빌 일일 멘토링
• 2016_여름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_김도영 (SK브로드밴드)_대학생에게 사회봉사란 어떤 의미인가?
_안정권 CSO (솔로우 워크)_글로벌 리더로서 SDGs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희망한대 리더그룹 3기 봉사is원들2_마장동 벽화 봉사/한양대학교 캠퍼스 투어 (대상:성동중합장애인복지관)
• 2016_여름학기_사회봉사 교과목

07

• 2016_여름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_김승현 교수(의학대학 신경과학교실)_천만시민 기억친구 교육
_노순호 대표(소셜벤처 동구빌)_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소셜벤처
• 창의캠프1(교육소외지역을 위한 방학 단기 교육멘토링)_서화중, 신명중, 창기중, 충원고, 함성중

08

• 2nd Asia Pacific Youth Exchange in Philippines
• 창의캠프2(교육소외지역을 위한 방학 단기 교육멘토링)_김제교육청
• 2016_2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1_김광욱(국제개발협력)_대학 사회봉사의 새로운 지평_김승현(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_천만시민 기억친구, 치매에 대한 의학적 이론과 치매어른신 이해

09

- 2016_2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2
_김광욱(국제개발협력)_대학 사회봉사의 새로운 지평
_김정태 대표(MYSC)_I can't stand it anymore!
- 2016_2학기_사회봉사 교과목
- 대학생 SDGs 체인지메이커 양성 워크숍1
- Arirang for Neighbors_소액기부 플랫폼 '대트리스' 프로젝트
- Arirang for Youth_제5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부산참여_부산 벅스코
- 2016_2학기_사회봉사 리더 심특강1
_신지현(BM)_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철학 및 사례

10

- 대학생 SDGs 체인지메이커 양성 워크숍2
- 한양대학교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모집_30명
지원자 중 3팀 결성
- Ashoka U 인증을 위한 HYU 사회혁신팀 위촉장 수여식
- 2016_2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2
_김종빈 대표(WEOGWORK)_대학생 나눔의 의미

11

- Arirang for Globe_2016 Hanyang Seventeen Hearts Festival
- 청소가 즐겁다! 심시일락_교내 미화 근로자분들을 위한 일일 청소당번 봉사활동
- 해외 소셜벤처 협약식_5팀(Eco-Farmket, Center for Learning, Larga Santa Rosa, Nino Nina Clothing, Aquaponics)
- 실개천 생태복원 견학 및 체험 사회봉사_
아산환경과학공원, 자연정화생태습지
- 2016_2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3
_노순호 대표(동구발)_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가꾸기
- 해피빈닷컴퍼니클럽과 함께하는 농촌 어르신 겨울나기 준비 자원봉사_경상북도 청송군

12

- 희망한대 사회공헌 활동2_마장동 노인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테이프 붙이기 활동
-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_한국과학창의재단
- 2016_겨울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소양/인성 교육
_정경선 대표(루트임팩트)_사회혁신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_도현명 대표(임팩트스퀘어)_사회혁신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 2016_겨울학기_사회봉사 교과목

2017

01

- 3rd Asia Pacific Youth Exchange in Philippines
- 해외 소셜벤처 진행 상황 라운딩(네팔, 방콕, 필리핀)
- 3rd Asia Pacific Youth Exchange in Thailand
- 2016_겨울학기_사회봉사 리더십 특강
_오경은 대표(루디스립션_Loopkin)_디자인 명킹을 적용한 유아교육 개발 프로그램

02

- 1st Social Venture Youth Exchange_
MIT(말레이시아)
- 해외 소셜벤처 현장 학생 봉사단 파견1_ Eco-Farmket(네팔),
- 해외 소셜벤처 현장 학생 봉사단 파견2_Larga Santa Rosa(필리핀)

Hanyang ChangeMakers

from Volunteering
to Social Innovation



발행인	이영무 총장
편집인	김성환 사회봉사단장
발행처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기획 및 편집	강주섭 사회봉사단 부단장 서진석 사회혁신센터장 한예은 사회혁신센터 직원
주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홈페이지	http://www.hvc.hanyang.ac.kr/
TEL	02-2220-0536~0540

